

03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추진부서 경기도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2443

개선배경



-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권에 포함되어 56개 드론기업은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드론 테스트가 불가능하여 횡성 등으로 이동하여 테스트하는 실정
 - 드론기업 R&D에 테스트가 6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신산업의 특성상 조기상용화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여 테스트베드가 절실

※ 관련법령 및 규정

- 「항공안전법」제127조 및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 제21조(비행승인의 기준)

개선내용



개선전

- 관제공역 내에서 드론 테스트 불가



개선후

- 3개의 시험비행장 조성으로 관제공역 내에서 드론 테스트 가능

- 성남시, 공군,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이 협약관계를 구축하여 성남시가 통제관이 되는 조건으로 기업체의 R&D개발을 위한 테스트가 가능하게됨('19.2)

개선효과



- 가까운 지역에서 넓은공역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고도화한 드론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실험장이 조성됨
 - ※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행장 주변 비행 규제는 조종자 준수사항 중 해결 시 가장 큰 고용창출 효과발생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 작성자 경기도 성남시 토지정보과 김기한 031-729-2443

2009년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10여년 만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온 성남시 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물로, 다만 제가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개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나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분당 등의 최첨단 ICT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발달된 ICT산업을 기반으로 4차산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이지만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산업은 서울공항 관제권 규제로 기업체가 제작하고 고도화한 드론을 테스트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안전과 보안의 민원에 부딪쳐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절실함이 큰 규제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통제관이 되기로하면서 협약체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관·군 이 문제에 매달려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제공역의 난제를 풀어 나갔고, 은수미 성남시장도 발로뛰는 행정으로 직접 국방부를 찾아가는 등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드론시험비행장이 조성되어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드론산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에 따르면 드론조종자 규제중 관제권 규제 해결은 가장 큰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 시대의 화두인 민간부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의지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